

“인간 김정호에 더 중점 두고 연기”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 김정호 役 차승원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에서 타이틀 롤인 김정호를 연기한 배우 차승원은 31일 “역사적 인물은 다시 연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에서 김정호라는 인물을 그려내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가. 그는 “그 당시를 살아본 것도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가늠이 안 됐다”고 그 이유를 됐다.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조선 최고의 지도로 평가받는 대동여지도를 만든 고산자 김정호 선생의 잘 알려지지 않은 삶을 다룬 영화다. 김정호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잘 알려졌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아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다.

차승원은 “지도꾼 김정호보다는 사람 김정호”에 더 중점을 두고 연기했다고 강조했다.

차승원은 극 중에 김정호의 실제 삶을 쫓아 우리나라 곳곳의 절경을 누빈다. 그는 그 중에서도 백두산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했다. 그는 “(가보면) 백두산이 왜 민족의 영산인지 깨달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승원은 이번 영화에 대해 “5점 만점에 3.5점에서 4

점 정도다”라고 이번 영화의 평점을 줬다.

그는 “제가 출연해서인지 여러 면에서 단점보다 장점이 보인다”면서 “이야기의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영화가 쉽다. 여러 계층의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영화다. 추석 연휴에 어울리는 영화다”라고 소개했다.

또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영화 앞부분에 혈연한 이야기가 없었으면 연기를 못했을 것이다. 인간 김정호가 틈이 많은 사람이라서 제가 (출연을) 선택하게 됐다”면서 “역사적 인물은 다시 연기하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그 당시 살아본 것도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가늠이 안 됐다”고 말했다.

또 “그 위인이 생각한 바를 1만분의 1이라도 쫓아갈 수 있을까 싶어 힘들었다. 차별화를 주기 위해 지도꾼 김정호보다는 사람 김정호를 구현하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차승원은 이번 영화를 촬영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이 부족해 연기에 어려움이 컸다고 소개했다.

그는 “사극이 내면재다. 그 전에 ‘광해’를 했는데, 단점이 있다.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가 관건이다”고 밝혔다.

이 영화는 국내의 아름다운 곳을 돌며 촬영돼 더욱 관

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차승원은 “백두산 빼고는 힘들지 않았다. 백두산은 첫날을 제외하고는 촬영 여건이 좋지 않았다. 첫날 다 찍어 놓아서 다행이다”면서 “그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을 잡자면, 단연 백두산이다. 일반적인 산세와 다르다. 가보면 백두산이 왜 늘 달력에 나오는지, 애국가에 왜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하는 지를 알 것이다”고 소개했다.

차승원 표 에드립에 대해서도 그는 “이번 영화에서는 대사를 만드는 에드립은 없었다. 에드립이라고 한다면 추임새나 웃음, 행동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면서 “그렇게 중반 이후 끝까지 그런 말투와 행동, 자세, 손짓을 썼던 것 같다. 특별히 내가 여기서 이런 것을 더 첨가해야겠다는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영화 속 김정호가 흥선대원군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는 “픽션이다. 김정호가 흥선대원군을 만났다는 역사적 기록은 없다. 다만 이런 지도를 만든 사람을 당시 최고 권력자인 흥선대원군이 한 번쯤 만나지 않았을까 추측했다”면서 “흥선대원군의 오른팔인 신원이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보면 김정호를 많이 도왔는데 그가 만남을 주선해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본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생방송 부담마저 즐기겠다”

탁재훈 SNL 크루 합류…3일 첫 방영

겉썩한 입담을 자랑하는 탁재훈(48)이 하는 성인 코미디는 어떤 모습일까.

탁재훈이 tvN 성인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 시즌8’에 합류한다.

그는 지난 31일 서울 삼양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SNL코리아 시즌8’ 기자간담회에서 “어디까지 선을 지켜야 할지, 넘어야 할지 저 혼자 고민을 많이 한다”며 “15세, 19세 연령 제한이 있지만 저는 정신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선을 넘지 않고 재밌게 잘 한번 타보겠다”고 다짐했다.

탁재훈은 ‘SNL코리아 시즌8’ 후반부의 ‘새러데이 나이트라인’이라는 뉴스쇼 코너에서 MC 역할을 맡아 사전 대본 없이 즉흥적으로 뉴스쇼를 끌고 가게 된다.

그는 “생방송이라 실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며 “하지만 그런 부담을 즐기겠다. 안 그러면 성격상 그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 즐기겠다”고 했다.

탁재훈은 SNL코리아의 주축인 신동엽에 대해서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잘 아는 관계라 긴 얘기가 필요 없을 거 같다”며 “같은 배를 탔지만 직책이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엽 씨는 콧트와 다른 크루들을 끌고 가는 수장 역할을 하고 저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응원하면서 잘 끌고 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청률 공약을 요청하자 SNL코리아 최고 시청률인 3.4%를 넘길 경우 “여기 오신 모든 분께 식사 대접을 하겠다”면서 “2억 정도면 되겠죠”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번 ‘SNL코리아 시즌8’에는 탁재훈 외에 이수민, 김소혜, 이명훈, 장도윤도 합류한다.

1995년 가수로 데뷔한 탁재훈은 1998년 신정환과 결성한 ‘컨쥘리 꼬꼬’ 활동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특유의 입담으로 각종 TV 예능프로그램의 MC, 영화배우로 맹활약해 만든 예능인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그러다 2013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을 받으면서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탁재훈은 방송 중단 3년 만인 지난 5월 엠넷의 가상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인 ‘음악의 신2’로 방송에 복귀했다. SBS TV 토크쇼 ‘디스코-셀프 디스코믹클럽’ MC로도 활동 중이다.

탁재훈은 지금까지 자신의 활동을 자평해 달라고 하자 “제가 잘하거나 능력이 있어서 방송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100점 만점에 50점이다.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점수를 주고 싶다”고 했다.

‘SNL코리아’는 미국 인기 코미디쇼 ‘SNL(Saturday Night Live)’의 한국판으로 2011년 첫선을 보였다. ‘SNL코리아 시즌8’은 오는 3일 밤 9시 15분 첫 방송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이국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스쿨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우리말 겨루기(재) 50 야생일기(재)	0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재)	00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육중화>(재)	00 닥터 365 05 토크콘서트 화통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불어라 미용아>(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보물섬 55 별빛가족(재)	00 다큐멘터리 3일(재)	20 수목드라마 <W>(재)	20 나홀로 세계여행 2 55 TV블로그 꿈지락
2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00 세상발견 유레카 55 닥터 365
3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튜튼생활제초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55 책갈피 요청 모모	30 3시, 뉴스브리핑
4	3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위킹맘 육아대디	30 고향이 보인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00 터닝매카드 W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뉴스	00 꼬마해녀 동나와 해녀특공대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설여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해>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일일연속극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위킹맘 육아대디>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900회 특집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방송의날 기획 송터 VR 특집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00 수목드라마 <W>	00 드라마 스페셜 <질투의 화신>
11	00 KBS 뉴스라인 40 세계은행 김용 총재가 말하는 한국교육의 미래	10 해피 투게더	10 능력자들	10 자기야-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10:30 한국기행	15:05 두끼 탐험대	20:50 세계테마기행
05:30 통일의 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20 꼬마기사 마이크	《중국한시기행8
06:00 한국기행	《콜리플라워 수프와	15:35 오솔 상자	황하 4부 황하의애(黃河之愛)》
06:20 세계테마기행(재)	블루베리 치즈 토스트》	15:45 코코코 다코	21:30 한국기행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두다다롱	《비밀의 문이 열리면 4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00 EBS 정오 뉴스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귀농의 법칙》
07:45 꼬마버스 타요	12:10 장수의 비밀	16:45 당동영 유치원1~3(재)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8:00 당동영 유치원 1~3	12:40 역사채널e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新 통과의례 - 1부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17:45 꼬마버스 타요(재)	경제통, 도시를 떠나다》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13:40 스쿨랜드-한자왕국	18:00 생방송 토틈! 보니하니1~4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9:15 시계마을 티가티!	13:50 그림을 그려요	19: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3:55 출동! 슈퍼왕스(재)	19:30 EBS 뉴스	《자메이카 남편은 못말려》
09:40 아버지의 귀환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9:5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간 큰 남자들》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오늘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 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일 (음 8월 1일 丙戌)

子

48년생 막연한 희망 사항이라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 60년생 운색하거나 변형시키려 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 72년생 이 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다. 84년생 서로 맞대어서 꼼꼼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7, 13

丑

49년생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 것이다. 61년생 남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처리했을 때 무리가 따르지 않으리라. 73년생 고통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활력소가 되리라. 85년생 예견된다면 당연히 피하고 봐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6, 43

寅

50년생 탄력이 붙을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62년생 화제거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74년생 가능성은 반반이니 마음을 비우고 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86년생 누적인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92, 66

卯

51년생 절차대로 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63년생 냉철한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인이 필요하다. 75년생 상대의 저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하다고 볼 수 있다. 87년생 유지에 무리함이 따르지 않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87, 83

辰

40년생 헛대에 동저고리 넘어가듯이 걸리는데 얹어 가볍게 처리 될 것이다. 52년생 이루어지리라. 64년생 폭 넓은 안목이 감정의 형세로 이끌 것이다. 76년생 참신한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88년생 처음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행운의 숫자 : 58, 91

巳

41년생 어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적이다. 53년생 본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차질을 빚지 않는다. 65년생 의외의 대처하자. 77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89년생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6, 80

午

42년생 한정하지 않는다면 통제하기 힘든 형제이리라. 54년생 복합적이거나 다기능의 선택이 용이하다. 66년생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애를 먹는 모양새가 전개된다. 78년생 예상했던 바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해지겠다. 행운의 숫자 : 78, 03

未

43년생 대접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날이다. 55년생 원인을 분명히 따져봐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 67년생 장소를 쉼게하고는 있지만 마음은 파로파로이다. 79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3, 41

申

44년생 시세와 국량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되었느니라. 56년생 뜻이 곧다면 이루고야 말리라. 68년생 모르고 있는 것이 백만 나을 뻔한 상황이로다. 80년생 새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6, 38

酉

45년생 방심하고 있다면 연쇄적인 현상이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 57년생 참신한 기법이 성과의 가치를 드높이게 되는 국량이 다. 69년생 결실이 의외로 미진해졌다. 81년생 자질이 없으니 격정하지 않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1, 64

戌

46년생 타산지적의 격이므로 남의 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다. 58년생 다음 코스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70년생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채담하는 것이 낫다. 82년생 소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7, 54

亥

47년생 지속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 역시 점점 커질 것이니라. 59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되리라. 71년생 안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83년생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85, 7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